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8월 30일(금)

...(음력 7월 27일)...

Пятница

30 августа 2024 г.

№ 34 (1210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식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지식의 날 축하하며

9월 1일은 지식의 날이다. 올해 새 학기가 9월 2일 시작한다.

사할린주 정부는 "지식의 날을 맞아 새 학기를 맞는 선생님들과 학부모에게는 지혜와 인내심을 기원하며,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는 우수한 성적과 흥미로운 발견과 새로운 일들,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생활 속에 실현되길 기원합니다"라고 전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학창시절과 대학시절에 우리는 지식을 축적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귀한 지식의 단련이 한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고, 그의 고향과 국가 전체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할린과 쿠릴에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를 비롯해 과학과 기술과 예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졸업반 학생들이 국가수능시험에서 더 높은 결과를 획득하고, 우리 대학에 입학할 준비가 되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돕고 있으며, 사할린의 청년들을 위해 가장 우선적인 사할린테크 캠퍼스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육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우리의 가정과 나아가 사할린과 러시아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9월 3일은 1945년 일본 군국주의와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자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일입니다. 조국의 해방과 일본 사무라이 군대로부터 아시아 민족을 해방시킨 공로에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위대한 업적을 반영하는 명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주와 사할린, 쿠릴열도에서 소비에트 장병들의 대담한 작전은 일본에 결정적인 패배를 가져다 주었고, 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켰습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당시 우리의 장병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강인함과 용맹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참전 세대의 대표들은 잔혹한 적들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베를린의 폐허 위에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며, 남 사할린과 쿠릴을 수복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평화를 국민에게 안겨주었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와 마을을 복구하고, 사할린주를 성공적으로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할린 지역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 번영하는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이룬 업적 앞에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친애하는 동향인 여러분! 전승일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에게 행복과 강건함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할린 지역과 위대한 러시아의 번영을 위한 새로운 성취를 기원합니다! 1945년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의 날이자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주 정부-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의 날이자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 사할린에서 기념

9월 3일(화) 사할린주에서 일본 군국주의와 전쟁 승리 및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9주년을 기념한다. 전통대로 사할린과 쿠릴 전 지역에서 기념 집회와 기념행사, 주제별 전시회, 공연 등 기타 행사들을 개최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오전 10시에 슬라와(영광)광장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불멸의 성화에 참전용사, 군 관계자, 정부기관 및 종교계 대표들과 주민, 도시 방문자들의 화환과 꽃 헌화 행사가 진행된다. 기념 행진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소비대 부대가 고리키 거리를 따라 콤무니스치체스키 대로를 향해 행진한다.

제 6차 시의회 마지막 소집회의 열려

8월 28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6기 시의회 마지막 소집회의가 열려 5년간 사업을 종결했다. 6기 시의회는 전체 회의 78개 회의를 소집했고, 도시개발 정책을 위한 1500개의 주요안을 채택했다. 이수치는 대단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시들을 위한 디자인-코드를 도입한 것과 향후 20년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계획 확정이다. 또한 교통 개혁이 시작되었고, 사할린 지역이 주택 건설 속도에 있어 전 러시아에서 6위로 오른 점이다. 또한 50km가 넘는 도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19개의 공공 장소를 정비한 것과 주택가 마당과 진입로 정비에 따른 기록적인 수치는 기억할 만하다.

일주일 후에는 제 7기 유즈노사할린스크 시дума 의원 선거가 진행된다.

단신

사할린주, 쾌적한 도시환경개발로 역사상 첫 국가상 수상

사할린주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연방 기획의 전망에 따라 우수한 지역 정보 캠페인'부문에서 상을 받아 제1회 쾌적한 도시환경개발 국가상 수상자가 되었다.

8월 25일(일) 칼루가에서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도시정비 분야에서 러시아의 지역들의 우수사업들이 발표되었다. 새로이 조성된 상은 러시아 도시들에서 생활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리팀, 전문가,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들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상이다.

사할린 주민들에게 갓 잡은 싱싱한 송어 31톤 배급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도하는 '배려, 보호, 존중' 기획의 <편히 구할 수 있는 생선>프로그램에 따라 갓 잡은 싱싱한 송어 31톤을 사할린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지난 한 주간 15개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 대부분이 생선 판매에 대해 '오스트로와 65' 푸쉬-통지 덕분에 알게 되어 송어를 저렴하게 살 수 있었다.

이 기간에 수산업체들이 갓 잡은 싱싱한 송어 320톤을 공급한 가운데 그중 31톤 이상을 사할린 주민들에게 무료로 전달했다.

새고려신문

2024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7,83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광복절 맞아 제3회 '라면'축제 개최

지난 2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알레야'쇼핑센터 앞 마당에서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와 사할린 한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라면>축제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광복 79주년 기념행사이기도 했다.

환영사를 한 '사할린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천영근 회장과 사할린한인연합회 유영희 부회장은 한인들에게 뜻깊은 광복절 축하인사를 전하며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라면'축제를 재미있게 즐기고, 이 행사가 좋은 추억이 되길 기원했다.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의 북 공연으로 막을 연 축제 프로그램은 다양했다. 이날 공연에 참가한 '아와랄란즈', '아크 엘레체크', '두슬리크'를 비롯해 다양한 민족의 예술단체들이 관객들에게 노래와 춤, 음악 연주로 러시아, 키르기즈, 아르메니아, 타타르의 문화를 소개하였다. 이날 사할린의 유명 음식사인 한 세르게이는 사할린에 대한 노래로 기쁨을 안겨주었고, 사할린의 아름다운 한민족 문화의 상징인 '에트노스'학교 학생들은 우아한 한민족 전통무용과 k-팝 댄스 공연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카로브에서 온 '댄스마니아'양상블도 역시 k-팝 댄스를 선사했다. 공연에 이어진 디스코텍 시간의 주인공인 동포 가수이자 음악가인 강팔용 씨는 즐거운 춤판을 만들었다.

또한 태권도를 비롯해 동양무술의 시범(담당 안수학 사범)도 인기를 끌었다.

그 외에도 '쌀포대 올리기 대회', '매운 라면 빨리 먹기' 등을 비롯해 다양하고 즐거운 대회들이 열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에 나섰다. 이 대회를 위해 좋은 상품도 마련되었다. 특히 한민족 노래대회에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승한 아리나 젊은이는 '생일 축하합니다'란 노래를 훌륭하게 무반주로 불러 관객들의 심사에 따라 대상에 오르며 전기 밥술을 받았다.

우 미하일과 백 알리사 진행자는 이번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데 노고가 많았다.

'라면'축제로서 물론, 시식회는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



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에 시식을 위해 47박스(1박스에 20개)의 라면을 끓여 1200인분 이상을 나누었다고 한다. 라면 종류는 3가지였고 라면 시식 준비에는 12명의 젊은 주부들이 나섰다. 이 축제에 '극동 오리온'업체와 '오비스 트레이딩'회사가 라면을 협찬했다.

이날 날씨도 좋았고, 동포는 물론 여러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즐겁게 보냈다고 주최 측이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주최측 제공)

2024 - 동방경제포럼 전체 실무프로그램 공개

동방경제포럼 공식 사이트에 실무프로그램과 발제자들이 발표되었다.

2024-동방경제포럼이 9월 3일(화)부터 6일(금)까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연방관구 러시아 연방 대통령 전권대표는 "매해 동방경제포럼에서는 현재 세계적 당면 현안으로서 더욱 실제적인 것을 주요 주제로 선택한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국제적 환경은 긴장과 불신이 증폭되고, 축적된 경제적, 문화적 유대관계가 붕괴되는 특징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극동지역 주변과 아시아 태평양국가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긴박하게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려

고 하고 있다.

동방경제포럼은 이러한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로서 러시아 및 다른 수십 개국의 정치인과 재계 대표들은 극동 연방관구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들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문제들이 바로 동방경제포럼에서 논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동방경제포럼의 주요 주제는 <극동 2030. 가능성을 창출하며 모든 노력 통합>이다. 실무 행사는 7개의 주제로 나뉘는데 <국제협력의 새로운 윤곽>, <독립 기술>, <가치성의 금융시스템>, <극동의 러시아>, <사람들, 교육과 애국심>, <교통과 물류: 새로운 노선>, <마스터-플랜: 건축에서 경제로>이다.

전 러시아 의과대학생들 사할린에서 실습 마무리

7월 15일부터 8월 28일까지 <갈리오티스>전 러시아 의료활동 기획의 일환으로 국내 각 지역에서 온 64명의 대학생들이 중급 및 하급 직원으로 사할린 의료기관들에서 실습과정을 마무리했다.

국내 14개 의과대학의 대표들이 실습과정을 위해 사할린을 방문했다.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종합과견단에 대학원생 (전공의) 6명이 전공과목에 따라 과견근무 학기를 보냈다.

이모저모

<우리가 태양을 깨운다> 서커스 쇼, 사할린에서 열려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레나 공연장에서 <우리가 태양을 깨운다> 서커스 쇼가 열린 가운데 무대에 국제 서커스 경연대회의 최우수상과 수상자로서 재능 넘치는 배우들이 출연했다. 이 행사는 사할린에서 이러한 예술 부문의 발전에 중요한 진일보가 되었다. 애니메이션터들은 신나는 춤과 실제와 닮은 캐릭터들의 유머, 시르헐에서의 매력적인 공연 등, 어른과 아이들은 각 배우들의 몸짓들을 놓치지 않고 신나게 관람했다.

성대한 서커스 공연은 사할린의 서커스 학교 운영의 시작이 되었다.

올해 9월 1일 서커스학교에 들어가는 사할린의 입학생은 120명이나 된다.

교육은 5년 과정이며, 여러 분야에서 8명의 교사들이 서커스의 기술을 익히도록 훈련시킬 예정이다. 이제 재능을 가진 사할린의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재주의 완성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자리가 생기게 되었다.

«Мы пробуждаем солнце»: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циркового шо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циркового шоу «Мы пробуждаем солнце». На арене выступали талантливые артисты — лауреаты и призер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курсов циркового искусства. Это событие стало важным шагом в развитии данного вида искусства на Сахалине.

Зажигательные танцы аниматоров, юмористические миниатюры клоунов и завораживающий номер на колесе Сиры. Взрослые и дети следили за каждым движением артистов.

Торжественная премьера шоу стала началом работы Сахалинской цирковой школы.

В этом году в цирковую школу с первого сентября зачислят 120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Обучение займет пять лет. Помогать освоить навыки циркового искусства будут восемь педагогов по несколь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Теперь у талантливой молодежи острова есть новое место для развития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своих навыков.

환경보호운동가들, 오토츠크 해안에서 러시아 국기를 펼쳐

24일(토)에 <에코시스템(생태계)> 전 러시아 환경보호운동 사할린 지부의 활동가들이 사할린의 러시아 연방 보안국 국경수비부 직원들의 가족들과 함께 코르사코브 지역 해안가에서 환경보호행사를 펼쳤다.

이 행사의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보호에도 기여를 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물> 활동의 일환으로 해변의 쓰레기들을 치우고, 모은 쓰레기들을 분리수거를 한 후, 대형 러시아 국기를 해변에서 펼치면서 행사는 절정에 이르렀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발표한 '조국 수호'의 해를 기념하여 국경수비부 가족들은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으로부터 기념 선물을 받았다.

환경보호운동가들은 "수영하고, 휴식하며, <러시아의 물> 활동도 진행하고, <에코 노동과 국토방위 준비>의 '분리수거하라' 행사를 진행하며)분리수거 인계를 준비했고, 지난 러시아 연방 국기의 날을 기념하여 12m의 국기를 깨끗이 청소된 해변에서 펼쳤다."고 전했다.

Экоактивисты растянули триколор на побережье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В прошедшую субботу актив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Экосистема» совместно с семьями сотрудников Погранич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и экологическую акцию на побережь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одробности об этом событии сообщили в Telegram-канале экодвижения.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не только отлично провели время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но и внесли вклад в охрану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о время мероприятия они очистили побережье от мусора в рамках акции «Вода России», а также провели раздельный сбор отходов.

Ярким моменто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о разворачивание на берегу российского триколора. Также в честь года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объявленного губернатор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семьи пограничников получили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от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купались, отдохнули, а заодно провели акцию «Вода России», подготовились к сдаче «ЭкоГТО «Проведя активность «Разделяй», а также в честь прошед-

шего праздника – Дн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флаг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растянули 12-метровый триколор на очищенном нами побережье», — рассказали экоактивисты.

사할린주에서 61명의 남성들이 육아휴직 중

사할린주에 61명의 남성들이 육아휴직 중에 있으며 그들 중 31명의 남성은 첫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러시아 사회복지재단이 전했다.

나머지 30명의 남성은 둘째와 그 다음 자녀를 돌보고 있다. 1.5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돌보는 유급 육아휴직 중인 아빠들에게는 매달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금액은 지난 2년간 평균 근로임금의 40%에 해당한다.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 사할린주의 러시아 사회재단은 2022년과 2023년의 월평균 근로임금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사회복지재단 측이 추가로 전했다.

지원 규모는 연방법이 정한 최저 금액보다 낮을 수 없다. 2024년 사할린 지역의 젊은 부모들은 매달 최소한 12,000루블리를 받는다. 올 초부터 러시아 사회복지재단 사할린 지부는 사할린의 근로자들에게 총 5억 루블리 이상을 지급했다.

2024년부터는 일하는 부모들에게 이 지원조치를 받는 조건이 변경되었다. 엄마와 아빠들이 정해진 기한 전에 일터로 나간다면 해도 보조금에 대한 권리는 잃지 않는다.

새로운 규정에는 정규 근무가 아니거나 원격으로 근무하는 것도 포함해 적용된다. 육아휴직 중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조금 혜택은 유지된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61 мужчина находится в декретном отпуск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61 мужчина находится в отпуске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31 из которых воспитывает первенцев.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бла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ФР.

Остальные 30 заботятся о вторых или последующих детях. Папам, находящимся в оплачиваемом отпуске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до полутора лет малыша выплачивают ежемесячное пособие, размер которого составляет 40% среднего заработка за два предшествующих календарных года.

(8면에 계속)

202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최 사할린을 여성 4명 대표해

한국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29일(목) 인천 중구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에서 국내외 한인 여성 지도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23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코윈) 대회를 열었다.

8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 대회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KOWIN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핵심 인재로 활약하기 위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모색한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내외 한인 여성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23번째를 맞았다.

29일 개막식과 함께 이수인 에누마 대표가 '성공의 자격'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어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에서는 '차세대 한인 여성 인재개발과 역량 강화'를 주제로 자신의 성공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경제·경영, 문화·예술, 과학·교육 등 분야별로 네트워킹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대회 참가자 300명 중 120명은 23개국을 대표하는 국외 참가자이며 180명은 국내 참가자다. 이번에는 세계한인여성네트워크 러시아지역담당관 하이 올라



씨를 비롯해 권행자, 최금순, 정영순 회원이 러시아 사할린을 대표했다.

국외 참가자들은 30일 인천 송도 지타워, 상상플랫폼, 인천도시역사관 등을 방문하고 한지공예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대회가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국내외 한인 여성들이 역동적인 에너지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 참가자 제공)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 서울 학술포럼 개최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시아이주연구센터(센터장, 고려대학교 도서관장 윤인진 교수)와 공동 주최로 8월 27일 (화) 현지시간14:00부터 18:00분까지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1층 L라운지에서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서울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공동주관으로 대한고려인협회, 대구 가톨릭대 다문화연구원,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호남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재외한인학회가 참여하고 재외동포청, 한국연구재단, 광산구청이 후원하였다.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고려인의 본국과 한국에서의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거주국에서의 고려인 사회 규모 변화

와 사회문화통합, 한국에서의 사회통합에 대하여 논의의 장을 펼쳤다.

윤인진 교수는 "올해는 고려인이 연해주로 이주한 지 1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시기별로 이들의 국민 정체성은 변해왔으나 한인으로서의 종족정체성은 끊이지 않고 유지해 왔다"고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고려인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고려인이 본국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본 포럼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보다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KIN 제공)

"전세계 한글학교 교사,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신청하세요"

재외동포청, 130명에 등록금 등 지원

9월20일까지 공관 신청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연세대 한국어학당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에는 650여 명의 교사를 선발해 지원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들 협력 기관과 함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하반기에도 제공한다.

관심있는 교사는 9월 20일까지 관할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 재외동포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

외동포청(oka.go.kr) 및 스터디코리아(study.korean.net)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130여 명의 교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 교사는 11월부터 10주간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한국어교육론 등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과정 참여 교사들에게 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이상덕 청장은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제고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전 세계 한글학교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교사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회, 광복절 행사 개최

지난 23일(금)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회(회장 김태성)는 모스크바의 '명가' 레스토랑에서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복 79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사할린 한인 1세대, 2세대를 위주로 모여 모스크바 한국인 한인회, 민주평통 러시아 지역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1세 사할린동포도 있었다.

이날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회 김태성 회장, 전국 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모스크바협의회 서지태 간사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따뜻한 축하를 하였다.

행사에 초대받은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대표는 이날 모스크바에 있는 사할린동포들에게 새고려신문을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김태성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 한인회장으로 하 지나 선출

지난 17일(토)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 결산선거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신임 회장으로 하 지나(한글 이름 하정애, 1961년생) 씨가 선출되었다.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날 회의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도 선정되었다. 장기간 회장으로 활동한 최영구 씨는 정관상(회장은 2 임기만 할수 있음) 단체를 지도하지 못하지만 운영위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하 지나 회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회의 설립자 중 한 분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추진한 '사할린한인문제: 해결방안'국제심포지움의 준비에 적극 참가했고, 2018년부터 단체 운영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민족 문화 보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하 신임회장은 앞으로도 사할린한인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맞아 본사는 사진공쿠르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사할린 한인 역사>, 그리고 한민족의 금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사진.

• **출품수:** 3점 이상

• **사진규격:** 1,000x1600 픽셀의 JPG/JPEG 형식 파일 (5mb 이하), RGB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은 2024년 9월 27일. 우수 작품은 시상식에서 전시.

사진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직위원회

ОБЪЯВЛЯЕМ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э коре синмун"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Тема "Мо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тем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Требования к работам: от 3-х фото, формат JPG/JPEG, размер 1000x1600 пикселей, объем не более 5 МБ, цвет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RGB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Лучшие работы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а также выставлены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дата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Оргкомитет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금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ец Денис Ким был рефери финального поединка ОИ-2024

Н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 Париже Россия по известным причинам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в крайне усеченном формате. В столице Франции оказалось мало не только россий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но и судей.

И всё же, судьи из России были. А среди них – Денис Ким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лавный тренер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тхэквондо, судь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атегории).

Островной специалист оказал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России, кто получил лицензию судьи на состязания тхэквондистов.

Отбор на Олимпиаду среди судей продолжался три года.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на континентальных отборочных кэмпх были определены 58 лучших судей мира. В финальный список включили 26 судей (13 мужчин и 13 женщин). Сам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месте Гран-Пале. Все билеты в зале на 10000 мест были проданы, – рассказывает Денис Ким.

Сахалинцу доверили работу центральным рефери в решающих,



самых важных и ответственных поединках.

На его счету судейство схватки за бронзу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свыше 80 кг (Шейк Саллах Сиссе из Кот-д'Ивуара выиграл у мексиканца Карлоса Сансореса со счетом 2:1) и финал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80 кг (тунисец Фирас Катусси одержал победу над Мехраном Бархордари из Ирана).

В итоге Денис Ким получил ни с чем не сравнимый олимпийский опыт и подтвердил высокий авторитет российской школы арбитража.

Борис Храмов

Фото: Всемирная федерация тхэквондо

Источник: Sopka.ru

Сны о России

14 августа отметил своё 75-летие Михаил Пак. Писатель, художник, журналист. Никогда и ни при каких-либ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не изменявший своему предназначению, выбранному много лет назад. В среде русскоязычных корейцев на пространстве СНГ пишущих немного, 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писателей, в полном смысле этого слова, – единицы. Ценность созданного им, видимо, определит время. Михаил, для нас просто Миша, никогда не претендовал на литературные лавры. Они сами находили его, наверное, потому, что интонация и спокойный пафос его прозы, не всегда угождающие сиюминутным капризам времени, оказываются созвучными внутренним ощущениям тех, кто прикоснулся к его рассказам, повестям, романам, кто увидел нечто близкое для себя в светлой палитре его живописи.

Михаил Пак – этнический кореец, чьи предки переехали из Кореи в Россию в середине XIX века в царствование Александра II. Член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Номинант Букеровской премии 1997 года. Лауреат премии им. Валентина Катаева 2001 года за повесть «Натюрморт с яблоками» и 2007 года за роман «Лег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реке». Лауреат премии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й KBS 2006 года (Сеул, Южная Корея) в области литературы. Лауреат премии им. Александра Куприна за сборник рассказов «Облака на юге» 2010 года. Лауреат премии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015 года. Сейчас Михаил Пак находится в творческой командировке в Южной Корее. Она плодотворна. Перевел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несколько книг корейских авторов. Продолжает рисовать и пишет прозу. Последняя публикация пьесы в журнале «Вторник».

Михаил Пак:

Зачастую, в своих встречах с читателями и интервью с журналистами, я начинаю со слов: «Я родом из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Что я вкладываю в них? Не говорит ли



во мне ностальгия по прошлому, по СССР? Может быть. Почему нет? Ностальгия – это не обязательно тоска по прошлому, признак старости или что-то другое в этом роде. Мои чувства, правда, можно назвать как ностальгия. Ностальгия, но не по прошлому, а по утраченному прекрасному будущему, которое могло бы стать продолжением Великого Союза.

Нынче только ленивый не ругает и не поносит времена СССР. Я не из тех. Ругать Великую державу, в которой жил, это всё равно, что плевать в колодец, из которого ты пил воду.

Моё детство было послевоенное, голодное. Многого не хватало. С ребятами мы катались зимой на обрезках камыша, приспособив их вместо коньков, привязав бечевкой к башмакам.

Одиннадцатилетним мальчишкой, вместе со взрослыми, я ликовал, глядя в экран черно-белого телевизора – полёт Юрия Гагарина в космос! Какой это был всенародный восторг! Люди на улице обнимались, плакали, стихийно собирались во дворах, накрывали столы, устраивали сабантуй, каждый нес, что мог, кто лепешки, кто селёдку, кто сухофрукты, кто банки с соленьями, водку... Люди не скрывали своих чувств, ощущали единение с огромной страной! Позже я узнал, что в тот памятный день 12 апреля 1961 года, поэт Олжас Сулейменов написал поэму «Земля, поклонись человеку!», посвятив её Гагарину.

ИА РУСКОР

III фестиваль "Рамён" состоялся на Сахалине

24 августа, в суббот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площадке перед ТЦ «Аллея» прошёл 3-й Фестиваль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Рамён". Его приурочили ко дн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79 лет тому назад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вновь обрел независимость, освободившись от оккупации Японии. 15-е августа считается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аздником на всем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естиваля ста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 Ханин" и НКО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Фестиваль открыла композиция на традиционных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ах в исполнении учащихся ДШИ «Этнос». Собранных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ОСК "Сахалин Ханин" Алексей Чон 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НКО "Ассоци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талья 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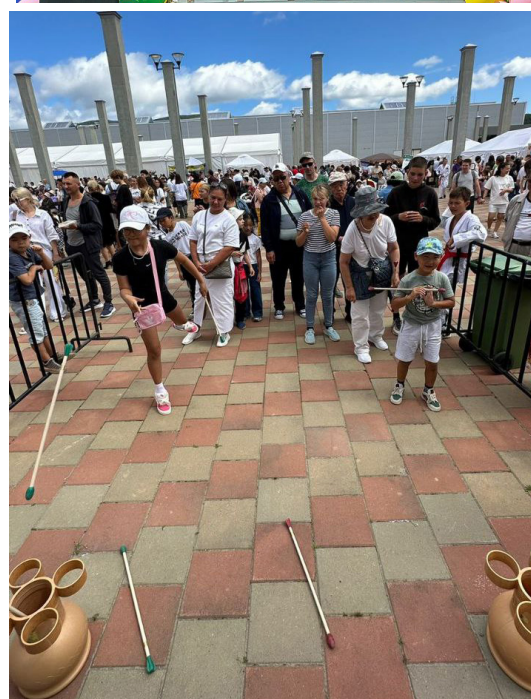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метили, что в нашей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не важно не забывать свою культуру, язык. Народам необходимо общаться и узнавать традиции друг друг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гостей радовала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с выступлениями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из разны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фестивале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Рамён"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учащиеся корей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армянский народный ансамбль "Назани", танцев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Аваланж", автор-исполнитель Сергей Хан, танцев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Dancemania (Макаров), татарский ансамбль "Дуслык" и коллектив киргизского танца "Ак Элечек".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ялись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спортсме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хэквондо "МФТ".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ре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играх (тухо, деги чаги и др.), померяться силами в конкурсах на поднятие мешка риса, на скорость поедания самого острого рамен, а также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где главным призом стала рисоварка.

Конечно же, главным акценто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а лапша Рамён. Гости могли бесплатно продегустировать лапшу трех вид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общили, чтобы съедено 47 ящиков рамена (в каждом ящике по 20 пачек) – это более 1200 порций. Помимо этого, можно было по-



пробовать свежеприготовленные ттокпоки (рисовые палочки) и пхадён (блинчики с зеленью и морепродуктами).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ырученные от продажи ттокпоки и пхадён средства будут отправлены для поддержк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В завершении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стоялась своего рода дискотека, где под песни в исполнении Петра Кана выходили плясать от мала до велика.

Веселое настроение, прекрасная погода, отлич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масса народа – праздник состоялся.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Свыше полтонны гуманитарного груза собрал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для жителей Курска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обща с Народным фронтом подготовили партию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жителям Курска.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ает Sakh.online.

«Когда мы узнали о трагедии, которая случилась в Курске, и о том, что наши партнеры из ОНФ объявили о сборе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то мы просто не могли остаться в стороне и объявили о сборе средств для закупки необходимых вещей. Мы закупили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едикаменты, средства личной гигиены,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Наши коллеги из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ткликнулись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и мы примерно за два дня собрали необходимую сумму», – поделился вице-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ергей Ли.

Активисты собрали предметы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ля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одежду, сухие пайки, консервы, средства гигиены, лекарства, постельные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игрушки и другие нужные вещ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е могла остаться в стороне.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по всей России объявил сбор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и в том числ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ы объявили 14 август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ткликнулось очень м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просто неравнодушных граждан с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Весь груз мы отгрузим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реабилитации, и совместно с акцией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данный груз уже через три дня полетит в Курскую область. Мы пока сбор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не останавливали, пока есть запрос, мы будем помогать, помимо этого у нас здесь организован сбор помощи для наших участников СВО. Уж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вух лет мы непрерывно работаем», – поделилась руководителе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Народный фронт» Алена Силачева.

Сбор вещей для жителей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ходит в штабе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ица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Ознакомиться со списком необходимых вещей можно в Telegram-канале ОНФ.

(Источник: Sakh.online)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отложил встречу с лидерам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отложил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й на 30 августа ужин с лидерам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до окончания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Как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чиной данного решения стали разногласия по вопросу увеличения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Президент планировал встретиться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артии Хан Дон Хуном, лидером парламентской фракции Чху Гён Хо и членами Высшего совета. 27 августа Хан Дон Хун предложил отложить увеличение приёма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до 2026 года, чтобы урегулировать кризисную ситуацию в отечественн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заявил журналистам, что позици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тносительно медицинской реформы остаётся неизменной.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спытана обновлённая РСЗО

27 август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остоялись испытания обновлённых реактивных систем залпового огня (РСЗО) калибра 240 мм, за которыми наблюдал лидер страны Ким Чен Ын.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контрольно-проверочные стрельбы подтвердили превосходство РСЗО,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обновление, по всем показателям, включая систему наведения, управляемость и разрушительную мощь». Ким Чен Ын «изложил важную политику, которой необходимо следовать при производстве новых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орудий и оснащении ими армейски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Ранее сообщалось, что обновлённые РСЗО начнут поступать на вооружение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К празднику чхусок жители РК получат поддерж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осеннему празднику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который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в середине сентября, жители РК получат поддерж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частности, владельцам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а также самозанятым, предоставлять в качестве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около 40 трлн вон (30 млрд 280 млн долларов). Как сообщила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Хан Чжи А, решение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встреч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резервов на рынок направят 170 тысяч тонн основных праздничны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включая корейскую капусту, яблоки и груши. Спрос на овощи, яйца и други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обычно растёт перед праздником Чхусок, поскольку люди готовят праздничные блюда для семейных встреч.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так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отменить сбор за проезд по автомагистралям и предложить билеты на скоростные поезда KTX и SRT по сниженным ценам для поездок из провинций в столицу. Льготы будут действовать с 14 по 18 сентября.

РК и США завершили учения Ulchi Freedom Shield

29 августа РК и США завершили ежегодные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Ulchi Freedom Shield, проходившие в течение 11 дней, начиная с 19 августа. По данным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в основных командно-штабных учениях, проходивших в формате компьютерного моделирования,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около 19 тысяч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х участники отрабатывали отражение угроз, исходящих о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ракет, глушения сигнала GPS и кибератак. Параллельно прошли 48 полевых учений, включая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стрельбы, высадку десанта, отработку совместных действий военно-воздушных и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Это на 10 учений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стоялись также учения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с участ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Между тем, на учениях этого года не отрабатывалось отражение ядерной атак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июле в РК побывали 1,41 млн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29 августа, в июле в РК побывали 1 млн 410 тыс.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что на 36,5%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Июльс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97% от уровня того же месяца допандемийного 2019 года. Большинство иностранцев, посетивших РК, составили граждане Китая (459 тысяч человек). Далее с большим отрывом следуют граждане Японии, Тайваня и США. Совокупное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побывавших в РК с января по июль этого года, составило 9 млн 110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66,8%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Это 92% показателя аналогичного периода 2019 год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числ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побывавших в июле за границей, составило 2,5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что на 16,2%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месяц прошлого года. Это 95% июльского показателя 2019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южнокорейцев, выехавших за границу, почти в 1,8 раза превышает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посещающих РК. Большинство граждан РК побывали в Китае (2 млн 680 тыс. человек). Далее следуют Япония, Тайвань и США. Совокупный показатель за первые семь месяцев этого года составил 16 млн 530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составляет 94% показателя того же периода 2019 года

RKI

Студенты возвращаются в Пхеньян

Москва, 24 августа – ИА РУСКОР. Пятеро студентов росси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прибыли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а языковую программу, что ознаменовало первый въезд росси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в Пхеньян после четырех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COVID-19, сообщило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и в Пхеньяне.

Студенты МГИМО МИД России посетили посольство, и он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языковой программе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Ким Ир Сена, сообщило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и в своем Telegram-аккаунте. «Мы желаем студентам МГИМО успехов в изуч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надеемся встретиться с ними в будущем в качестве новых дипломатов в Пхеньяне»,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МГИМО известен как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которое зани-

мается подготовкой дипломатов.

Ранее в этом году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разрешила въезд китайским студентам, что стало первым случаем, когда иностранцам разрешили посетить страну с режимом затворничества для учебы. С тех пор, как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чала вновь открывать свою границу в август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сле ее закрытия в начале 2020 года из-за COVID-19, она частично одобрила въезд иностранцев, включая дипломатов и российски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После переговоров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в Пхеньяне в июн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я об активизации обменов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порта,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Прививки против COVID-19 вновь востребованы

Сеул, 27 августа – ИА РУСКОР. Ожидается, что почти 72 процента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65 лет и старше получат прививки от COVID-19, согласно официальному сообщению. В ответ на недавний запрос газеты Korea Times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плане вакцин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заявил, что, из-за резкого роста новых случае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ызванных вариантом KP.3, ожидается, что 71,9 процента лиц в возрасте 65 лет и старше получат обновленные вакцины против COVID-19, как только они станут доступны. Новые вакцины от Pfizer, Moderna и Novavax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ходятся на рассмотрении для утвержде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ых продуктов и медикаментов, добавил чиновник.

Агентство по борьбе с болезнями планирует закупить 7,55 миллиона доз вакцин для последней волны COVID. Он объяснил, что необходимое количество вакцин было определено на основе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в июле 2023 года, и количества лиц высокого риска. Чиновник сказал, что агентство намерено вакцинировать более 50 процентов из 12 670 000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и работнико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и других учреждений высокого риска, когда в октябре начнется программа бесплатной вакцинации.

В последние недели резко возросло число новых случаев заболевания COVID. Да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оказывают, что число пациентов с COVID,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нных в 220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больниц по всей стране, достигло 1464 в третью неделю авгус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226 в третью неделю июля —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 тех пор, ка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ерешло к эндемическому подходу в мае.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полагают, что это число, вероятно, продолжит расти в ближайшие недели, поскольку студенты и многие работники возвращаются к своим обычным обязанностям после летних каникул, которые обычно длятся с середины июля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Главное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ждёт гостей

Пусан, 22 августа – ИА РУСКОР.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в Пусане (BIFF), главное кинематограф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в стране, готовится к показу в этом году, поскольку организатор продолжает раскрывать подроб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30 новых работ азиатских режиссеров.

В этом году кинофестиваль (BIFF) пройдет в кинотеатрах со 2 по 11 октября. В дополнение к основному мероприятию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ъявили, что 30 новых работ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Азиатском рынке проектов (APM), площадке инвестиций в кино и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роводимой параллельно с фестивалем. «Для 27-го Азиатского проектного рынка в этом году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441 проект из 44 стран, и среди них 30 полнометражных кинопроектов из 17 стран были официально отобраны для представления киноинвесторам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й во время фестиваля в октябре»,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организатора.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работы, демонстрирующие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циальное и культурн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различных азиатских стран, привлекают внимание бла-

годаря максимальной зрелищности и свободе выражения мнений, при этом точно передавая свои послания.

Среди известных работ — новый фильм бангладеш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Икбала Х. Чоудхури «Дакар Наги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Чоудхури получил премию «Новые течения» за свой фильм «Рестлер». Также представлен последний фильм индонезий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Врегаса Бханутеджи «Левитация», который ранее снял пригласенный New Currents фильм 2021 года «Ксерокс». Также были отобраны семь работ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ежиссеров. Организатор заявил, что в этих работах сочетаются новые сюжеты и цельно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Это «Прощай, больница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режиссера О Се Ена, «Дверной косяк» Чон Бома, «Клуб адского пламени» Шин А Га, «Станный брак» Чон Вон Хи, «Улан-Батор» Кан Дон Хуна и «Путь в Этрета» Шин Су Вона. Недавно фестиваль представил постер этого года, дизайн которого вдохновлен поднимающимися морскими волнами. По словам организаторов, этот мотив символизирует объединение фильмов из разных слоев общества.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важнее мечты

Сеул, 26 августа – ИА РУСКОР.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блюдается тенденция «обратной миграции» из таких стран, как США, Канада и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которые когда-то считались местом мечты для людей, ищущих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 данным Агентств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число постоянных жителей, переселившихся в Южную Корею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долгосрочных виз или карт постоянного жителя за границей,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растет — 1478 в 2019 году, 1676 в 2020 году, 1812 в 2021 году, 1736 в 2022 году и 1742 в 2023 году. Стоимость жизн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были одними из факторов, которые заставили некоторых корейцев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Эксперты говорят, что эту тенденцию обратной миграции обусловили различные факторы, начиная с чувства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медицинскому обслуживанию. «У людей есть естественный инстинкт испытывать чувство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своей родине, когда они становятся старше. Надежда на возвращение домой может укрепиться у тех, кому было трудно жить за границей, особенно у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столкнувшегося с расизмом или языковыми барьерами», — сказал Соль Дон Хун, профессор социоло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

верситета Чонбук. Существуют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мотивы. «Южная Корея — развитая страна. Она предлагает лучшие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США ил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ей. Тот факт, что пожилые люди, которые хотят вернуться в Корею после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могут получать базовые пенсии независимо от своего финансового положения, также является фактором, способствующим этому», — сказал Соль.

С 2011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внедряет систему двой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южнокорейским гражданам, проживающим за границей, в возрасте 65 лет и старше, восстановить свое южно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и проживать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они «не осуществляют свои права как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общая сумма базовой пенсии, назначенной людям с двойным гражданство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ставила 21,2 миллиарда вон (15,4 миллиона долларов), что в девять раз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2,28 миллиарда вон в 2014 году. Число пожилых людей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олучающих базовые пенсии, также увеличилось в пять раз — с 1047 в 2014 году до 5699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ервую в истории Национальную премию за развит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получил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Лауреатами и победителями в 18 номинациях стали лучшие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команды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овлечению жителей в городские проекты,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развитие малых городов и исторических поселений. Национальная премия – высшая награда, которая призвана объективно оценить вклад регион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и экспертов в сферу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рошла 25 августа в Калуге.

– Премия проводится впервые и охватывает широкий круг участников. Она призвана отметить заслуги все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вносят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команд регионов, экспертов, отраслевых организаций, а также волонтеров. Ими проделана огромная работа. За каждым реализованным проектом стоит большая команда, которая делает нашу страну и жизнь наших граждан лучше, – отметил глава Минстроя России Ирек Файзуллин, приветствуя участников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ем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ыла признана победителем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кампания региона по освещению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рейтингов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по выбору проек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неуклонно растет. В этом году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проголосовало уже более 72 тысяч жителей. Люди верят в проект – они видят ре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города меняются, приобретают новый облик.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ажно заблаговременно и широко информировать граждан о сроках и возможностях голосования, о новых проектах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чтобы каждый житель мог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возможностью повлиять на изменения в своем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Девятайкина.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ект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не имеет аналогов в мире. В его реализации участвуют около 5,5 тысяч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в 88 субъектах страны.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комплексному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городов и сел. Каждый год не только с помощью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о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парки, скверы, набережные, зоны отдыха.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приводят в порядок двор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и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е дома.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этом году завершае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21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К пример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же сделали первый этап п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набережной реки Рогатки и приступили ко второму. Завершить его планируют в этом году ко Дню города. В будущем сезоне проектом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елопешеходного моста в районе улицы Комсомольской.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голосовании. С 15 марта по 30 апреля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выше 72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 это на 18 тысяч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лагодаря активности жителей тр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 набрали свыше 180% 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благоустроить по две территории. За все врем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еобразили почти 160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стала доступна педагога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ажа работы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педагогам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вел итоги пятилетней работы, обозначил дальнейшие планы, а также ответил на десятки вопросов учителей.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в ходе встречи к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обратилась педагог школ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Женщина поделилась, что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снимает квартиру, однако очень хочет приобрести собственное жилье.

– Я родилась и выросла на Сахалине, окончила СахГУ и сейчас работаю в школе. Насколько я знаю,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доступна для педагогов только по достижении пятилетнего стажа работы. Я снимаю квартиру, это для меня большая финансовая нагрузка. Под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какая еще есть программа для решения жилищных вопросов?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с 1 июн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были внесены изменения в программу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 Арктическая ипотека». Теперь ипотеку под 2% годовых могут оформить педагоги без учета стажа работы. Раньше было важно отработать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минимум пять лет, чтобы оформить льготную ипотеку, теперь это условие не будет учитываться.

– Мы специально выделяем ресурсы на то,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жильем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развивают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Для этого мы строим 1,5 тысячи арендных квартир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400 – забираем в программу в Аниве, Долинске и Корсакове, и все это мы делае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ать,

в частност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роживания,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Еще одна женщина за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когда закончится ремонт на улице Есенина. Здесь уже через неделю в близлежащие школы пойдут сотни учеников, однако коммунальные и дорожные работы находятся в самом разгаре.

– Я учитель 26 школы. У нас на Есенина идет ремонт, в том числе тротуаров. Уже совсем скоро в школу пойдут дети. Когда это закончится, и как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а безопасность школьников?

Сейчас на участке ведутся капитальные работы по полной замене теплотрассы.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ончить ремонт до 1 октября. Перед началом учебного года, на этой неделе, сотрудн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ИБДД пройдут все пешеходные маршруты,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детей.

Еще одна из участниц встречи выступила с предложением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дети учителей могли учиться там же, где работают их родител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держал инициативу и поручил министру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работать этот вопрос.

– Я – за. Давайте сделаем так, чтобы дети с родителями были в одной школе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рописки. В этом вопросе нужна первоочередность,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педагоги за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есть 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в СахГУ переподготовку или получить второ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 Сегодня мы обсуждали кадровый вопрос. У нас есть много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различного возраста, не только молодого, кто хотели бы пройти переобучение или получить друго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Они могут пойти учиться заочно, но тогда им придется отрываться от своей основной работы на период сессий, кто-то должен их заменять. У нас в регионе есть проект «Абитуриент», в который входят несколько областей нашей страны. Там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ноценное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с получе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диплома. Будет ли СахГУ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этом проекте?

– С 1 сентября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новый закон,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переводить программы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дистанционную форму. У нас уже есть ряд предметов,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дистанционно, есть для этого также специальная платформа. С этого года мы начнем полноценную разработку ряда направлений подготовки, и студенты, которые будут поступать на эти направления, будут обучаться по индивидуальным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программам. Большая часть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интерактивном формате и без отрыва от осно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школе, – поделился рект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Прозвучали вопросы, затрагивающие ремонт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По просьбам педагог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ют имеющимся учреждениям,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обновления детских групп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Учителя в Дальнем ожидаю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ого спорткомплекса. Там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оявится крытый спортзал, для объекта уже выбрана площадка. Для родителей, чьи дети обучаются в коррекционной школ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редоставя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маршруты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езда воспитанников в учреждение.

–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сервисе, подвозе детей, нужно проработать любые формы для удовлетворения родителей, – добав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Кроме того, дл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проработ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подработк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учителя – люди, чьи знания можно применить в самых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Региональному министерству образования поручили проработать списки тех учителей, кто нуждается в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заработке на летних каникулах. Для них подыщут подходящие вакансии, где найдут применение их навыкам и компетенциям.

В завершение встречи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двел итоги 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учителя – это именно те люди, которые воспитывают наших детей, вносят неоспорим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а и формируют будущее нашей страны.

– Родители – это клиенты для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Если ребенок с его родителями – это ячейка общества, где и есть главное место развития ребенка, то все объекты и субъекты образования оказывают этому клиенту услуги. Если это так, то мы с вами можем построить более совершенную систему образования, где будет более высокая удовлетворенность родителей. Четверки, пятёрки – не самое главное в образовании. Меня волнует, чтобы родители, отправив ребенка в школу, были спокойны, что там все благополучно – комфортная среда, дружелюбная атмосфера, что ребенок развивается как свободная личность. Я хочу, чтобы у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кроме таблицы умножения, появилось что-то креативное. Он должен ходить на хореографию, петь песни, рисовать картины,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участвовать в секциях, и тогда он будет вдвое сильнее как специалист. Этому мы должны учить детей, такой человек сможет оставить след на земле. Обладая знаниями, искусством коммуникации, имея широкий кругозор, понимая культуру, которую накопило человечество, уметь пользоваться этим, и целено развиваться и продвигать это – таких детей мы с вами вместе и должны воспитывать, – подытож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м, на встрече прозвучал ряд частных вопросов. Все они также взяты на контроль, по ним да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руч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илят меры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защиты

Вопросы обеспе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и защиты от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посягательств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праздничных и памя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бсудили на совместном заседании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и оперативного штаб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лавы региона и начальника областного УФСБ.

– У нас с вами впереди несколько важных событий. День знаний, День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а также единый день голосования. И скажу так, что в политическом смысле могут возникнуть попытки организовать провокацию. Нам нужно быть готовыми к этому. В эти дни мы должны обеспечить максимальный уровень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наших граждан,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Безопасность организуют во время трех дней голосования. С 6 по 8 сентября в области пройдут выборы губернатора, а в нескольки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их совместят с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выборами.

В регионе будут работать 285 избират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Также совместно с органам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проработаны резервные помещения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Место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организовали для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е.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уже находится там.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о видеонаблюден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се постоянные места голосования оснастят металлодетекторами. Кроме тог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руглосуточно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штаб обществен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 В плане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все что мы раньше запрашивали 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 нас имеется. Мы постоянно обучаем наших членов комиссии. Мы их обучили действовать в случае экстренных ситуаций, в случае провокаций, – добавила Виктория Черкасова, председатель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заседании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и рассмотрели также вопросы проведения памя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Дню солидарности в борьбе с терроризмом (3 сентября), а также приняты решения по укреплению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защищенности объектов транспорта с массовым пребыванием людей.

Крупную партию техники и груза передали с Сахалина в зону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правило очередную партию груза в зону СВ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 передовую, где проходят службу островные бойцы, поступит специальное снаряжение и спецтехника, необходимая в том числе для обнаружения и подавления воздушных дронов противника.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новь встретился с командованием 68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в ходе подготовки груза для отправки в зону СВ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снабж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бойцов. По просьбам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 этот раз на передовую направили подаватели дронов,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эффективно бороться с беспилотниками противника.

– Сегодня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ередает нашим бойцам,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службу в зоне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чередную партию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Все, что сегодня отправляем, – это защита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ередайте воинам, что их семьи ждут и скучают. Мы, в лиц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нимаемся с их родными и близкими всеми вопросами жизнеобеспечения, быта и решаем все просьбы, с которыми они к нам обращаются,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правки груза с Сахалина в зону СВО совершаются регулярно. В предыдущий раз на передовую также направили несколько видов новейших квадрокоптеров.

– Люди обучены и ждут да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позволит обнаруживать и уничтожать вражеские БПЛА. Защита увеличит наш боевой потенциал и бое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 ускорит наше продвижение и приблизит победу, – подчеркнул врио командира 39 бригады гвардии подполковник Евгений Назаров.

Отметим,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егионе организована всесторонняя помощь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и их семьям. Помимо налаженных регулярных поставок груза помощи, снаряжения и спецтехники, запущен проект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бойцы, находящиеся на линии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получают адресные посылки от друзей и близких.

Кроме того, вклад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ддержку армии и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операции неоднократно отмечен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В 2023 году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Ф вручило региону кубок за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чен медалью «За укрепление боевого содружеств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6-8 СЕНТЯБРЯ 2024 г. - ВЫБОРЫ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8 СЕНТЯБРЯ****ВЫБОРЫ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Вадим
ПОЛИЦИНСКИЙ****ДЕПУТАТ ОБЛАСТНОЙ ДУМЫ
ТРЕНЕР ЧЕМПИОНОВ
ПРАВООЩИТНИК****Уважаемые земляки,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8 сентября состоятся выборы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иновника от решений и действий которого зависят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жизни на наших островах. Именно губернатор определяет состав министерств и ключевых лиц, управляющих областью. Даже руководител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теперь назначаются губернатором. Поэтому важна правильность нашего выбора в день голосования.

Все чаще возникает привозное ощущение, что наша земля - территория, где зарабатывают «нефтяные» и «северные», чтобы тратить на материке. А вед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люди хотели ж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не уезжали в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достаточно создать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Это наши острова, на которых мы живем и несем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 за открытую перспективу жизни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 за благополучную жизнь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 за возвышение человека и гуманизацию общества;
-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как основы жизни и процветания граждан.

В день голосования, отправляясь на избирательный участок, помните,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ля нас - родная земля, которую мы любим и которой восхищаемся! Дом, который мы строим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ем для многих поколений. Мы, как хозяева, должны навести в нём порядок так, чтобы каждый здесь жил и работал в достойных условиях!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우리 섬이다!
우리는 책임을 진다!****ЗА САХАЛИН! ЗА КУРИЛЫ!**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Так, при наступлении отпуска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в 2024 году Отделение СФР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итывает средний заработок за 2022 и 2023 годы», - добавили в сообщении.

Мера поддержки не может быть ниже минимального размера, который установлен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В 2024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молодые родители каждый месяц получают 12 тысяч рублей минимум.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Отделением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ФР выплачено пособий работающим островитянам на сумму, превышающую 500 млн рублей.

С 2024 года для работающих родителей поменялись условия получения этой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Теперь мамы и папы не могут потерять право на пособие, если досрочно вышли на работу. Новое правило применяется, в том числе, если работа не на полную ставку или в удаленном формате. Пособие также остается у всех, кто в отпуске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трудится у другого работодателя.

러시아 통계청, '사할린의 의사 월평균 근로임금 20만 - 25만 루블리' 보고

사할린주가 의사들의 가장 높은 월평균 근로임금에 따른 순위에서 러시아 상위 7위에 올랐다. 최근 6개월간 러시아에서 의사들의 월평균 근로임금의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올해 러시아 47개 지역들에서 의사들의 월평균 근로임금은 10만 루블리가 넘었는데 2023년에는 유사시기에 이러한 지역들은 26개 지역에 불과했다.

전과 같이 의사들의 근로임금에 따른 선두 순위를 석유, 가스산업개발 지역들이 유지하고 있고, 추코트카,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에서 의사들의 월평균 근로임금은 29만2천 루블리-28만4천 루블리에 이른다.

사할린주는 마가단 지역, 네네츠크 자치구, 모스크바, 캄차트카와 나란히 동급에 올라 이들 지역 의사들의 월평균 근로임금은 20만 - 25만 루블리에 달한다. 2023년에는 이러한

지역들은 3 지역에 불과했다.

전 지역들에서 이런 긍정적인 역동성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48개지역들에서 의사들의 월평균 근로임금은 10만 루블리가 안 되며, 하카시 지역의 경우는 9만8천 루블리이고, 인구셰티야는 5만8천 루블리이다.

РОССТАТ: Среднемесячный заработок медиков на Сахалине от 200 до 250 тысяч рубле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7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 самыми высокими средними зарплатами врачей. За последние полгода ситуация с зарплатами врачей в России заметно улучшилась. В этом году в 47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средняя зарплата врачей превысила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2023 году таких регионов было всего 26.

Лидерами по заработкам врачей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ются регионы с развитой нефтегаз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ью. На Чукотке и в Ямало-Ненецком АО средние зарплаты врачей достигают 292 тысяч и 284 тысяч рублей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наряду с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ью, Ненецким АО, Москвой и Камчаткой вошла в число регионов с зарплатами врачей от 200 до 250 тысяч рублей. В 2023 году таких регионов было всего три.

Однако, не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наблюдается положительная динамика. В 48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средние зарплаты врачей не достигают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В Хакасии, например, они составляют 98 тысяч рублей, а в Ингушетии - всего 58 тысяч рублей.

중앙 은행, 사할린 주민들의 학교 갈 준비 비용 통계 발표

사할린주 중앙 은행의 전문가들이 자녀들의 학교 갈 준비에 따른 비용이 얼마 드는지 통계를 집계했다. 이를 위해 2023년과 2024년간 평균비용을 참고했다.

2024년에 학부모들에게는 여학생을 위해서 4만 793루블리가 필요하고, 남학생을 위해서는 좀 덜 드는 편이라 전문가들은 4만245루블리로 추산했다. 지난해에 비해 학생들을 위한 준비 비용은 여학생이 5.8%, 남학생이 5.2% 증가했다.

흥미로운 것은 해마다 아동용 운동화는 6.2% 가격이 상승했고, 동시에 책가방은 0.8% 가격이 저렴해졌다.

사할린주 러시아 중앙 은행의 알렉산드르 쉬카루보 지점장은 "각 가정에는 그들만의 학용품이 있으며 해마다 학용품의 가격의 변동은 우리의 집계와 다를 수도 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 물가지수로서 이 물가지수를 러시아 통계청이 약 570개 품목의 학용품과 서비스에서 추출한 가격을 근거로 계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각 가정마다 준비하는 학용품이 있는데 말하자면 개별적 학용품의 가격 상승이 있다. 이러한 학용품 비용에 대해서는 핀쿨트.인포 (Fincult.info) 교육 포털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В Центробанке посчитали траты сахалинцев на сборы в школу

Эксперты отделения Банка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читали, в какую сумму обойдутся родителям сборы ребенка в школу. Для расчета использовали средние цены за 2023 и 2024 годы.

Эксперты рассчитали, что в 2024 году родителям девочек придется потратить 40 тысяч 793 рубля. Мальчика собрать совсем чуть-чуть, но дешевле, здесь эксперты насчитали сумму в 40 тысяч 245 рублей. В сравнении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суммы для девочек и мальчиков возросли на 5,8 и 5,2 процент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Интересно, что за год детские кроссовки стали стоить на 6,2% дороже, в то время как рюкзак стал стоить на 0,8% меньше.

«В каждой семье, разумеется, школьный набор свой, и изменение его цены за год может отличаться от нашего расчета. Инфляция — это индекс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он рассчитывается Росстатом исходя из стоимости набора из почти 570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При этом у каждой отдельной семьи свой набор, а значит, и своя, „личная“ инфляция. Кстати, посчитать ее можно на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м портале Fincult.info», — пояснил управляющий Отделением Банка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Шкарубо.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